

스마트워크 프로젝트로 단순업무 '척척'

# 7.2만시간 아껴... 직원들, 업무에 매진 '효율 쑥쑥'

증권가의 디지털혁신

KB증권

주 52시간 근무제 선제적 시행  
직원 업무효율, 고객 투자효율 ↑  
업계 첫 '디지털 트랜스포머' 상  
작년 '종이없는 디지털창구' 도입



지난 10월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2019 ID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에서 KB증권 박정림 사장(가운데)이 '디지털 트랜스포머' 상을 수상한 후 산드라 응 IDC AP부사장(왼쪽), 한은선 한국 IDC 전무(오른쪽)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KB증권은 투자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도 디지털화(化)를 추구하고 있다. 제조기업이 스마트공장 설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단가를 낮췄다면 KB증권은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통해 좋은 상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

직원의 업무 효율, 고객의 투자 효율을 함께 추구하는 것은 KB증권만의 디지털화다. 이는 업계 최초로 '디지털 트랜스포머' 상을 수상하면서 가치를 인정 받았다.

◆ 시스템이 아낀 2.7만 시간

KB증권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가장 선제적으로 도입한 증권사다. 증권사 업무 특성상 52시간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 속에서 KB증권은 시간의 효율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직원업무 효율을 위한 '스마트워크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직원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적용했다. 100여개의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RPA는 지난 9월 기준 연간 2.7만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원 10명의 뉘를 자동화 시스템이 해결한 셈이다.

직원 간 업무 응대 로봇 챗봇(Chat Bot·Talk KB)도 스마트워크의 일환이다. 특개비는 자연어 처리기술과 머신

러닝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고객·계좌관리, 출납·제권리, 매매 등 영업점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또 인사,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는 리서치 서비스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다.

KB증권 관계자는 7일 "향후 '특개비'가 직원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비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는 '종이 없는 디지털창구' 도입을 완료했다. 계좌개설을 비롯한 각종 업무처리를 종이서식에서 전자서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영업점 내 업무 처리 시간을 크

게 줄였다. 태블릿을 통한 전자서식 작성 시, 신청항목과 기재필요사항 등 일부 데이터가 전산에서 태블릿으로 연동돼 고객이 모든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투자도 스마트하게

올해 4월 KB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와 오픈-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API) 기반 비대면 투자일일 로보어드바이저 연계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재 전체 비대면 서비스 API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KB증권의 계좌개설·국내외 주식주문·환전 등의 증권거

래 시스템과 로보어드바이저의 우수한 운용기능을 한 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고객의 스마트한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 서비스인 '스타매니지먼트'는 머신러닝 기법의 고도화를 위해 지난 9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와 업무제휴를 맺기도 했다.

연내 오픈 예정인 '스타매니지먼트 I' 서비스는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대상으로, 각 종목별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할 예정이다. 각 종목별로 적정매수가, 적정투자기간, 투자분석리포트 등 최소 3개의 모델이 독립적으로 생성되고,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증권의 디지털 전략은 수상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 ID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에서 한국 '디지털 트랜스포머(Digital Transformer)' 상을 수상한 것.

'디지털 트랜스포머'는 디지털 및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프로세스, 운영 모델, 고객 경험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조직에 수여되는 상이다.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KB증권이 수상의 영예의 안았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KB증권 '에이블 어카운트' 잔고 3조... 1년새 1.8조 ↑

KB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출시한 'KB 에이블 어카운트(KB able Account)'가 잔고 3조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KB able Account'는 통합자산관리계좌(UMA) 체계를 사용해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자산을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일형 랩어카운트 서비스로, 지난 6일 기준 잔고가 약 3조 200억원을 넘어섰다.

KB증권의 전체 랩어카운트 잔고는 지난 2018년 말 4조 7000억원 수준에서 현재 약 1조 6000억원이 증가해 6조 3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KB able Account'의 잔고는 1조 8000억원이 증가해 전체 랩어카운트 잔고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체 랩 잔고 중 리테일 잔고 즉, 지

점 영업망을 통해 유치된 자금이 5조 5500억원으로 약 90%를 차지하며 상품 유형별로 보면 자산배분형 포트폴리오 상품이 잔고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자산배분형 중에서 글로벌 대체투자상품도 본격 출시해 진입장벽은 최대한 낮추고(최소 가입금액 1억원),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유성 랩(Wrap)운용부장은 "하반기에는 고객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다양한 만기와 위험성향에 맞는 인컴형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학교법인·공공기관과 같은 외부위탁운용(OCIO) 자금유치에도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 삼일회계법인 내달 4일 '회계관리제도 세미나'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2월 4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

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의무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예정돼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가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중점 점검 사항을 진단한다.

/손엄지 기자

## 한화건설 8개 단지 '포레나' 명칭적용

### FORENA

내년 이후 입주 예정 5520가구  
'포레나 신진주' 1호 입주단지

한화건설이 이전 브랜드(꿈에그린)로 분양, 공사 중인 8개 단지에 대해 신규 브랜드 '포레나(FORENA)' 명칭을 적용한다. 이번에 포레나 브랜드 변경이 적용되는 대상은 2020년 이후 입주 예정인 단지다. 총 8곳 5520가구 규모(오피스텔 1127실 포함)다. 포레나 노원(1062가구), 포레나 광고(759실), 포레나 부산초읍(1113가구), 포레나 인천미추홀(864가구) 등 서울과 부산, 인천 및 수도권, 각 지방의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다.

포레나 1호 입주단지는 오는 2020년 1월 입주 예정인 '포레나 신진주'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최고 38층, 아파트 424가구와 오피스텔 50실 규모로 들어서는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다. 서울에서 가장 처음 입주하는 포레나 단지는 영등포뉴타운 1-3구역에 위치한 복합단지 '포레나 영등포'가 될 전

망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8월 신규 주거 통합브랜드인 포레나를 런칭한 바 있다. 이후 입주 예정자들의 요청에 따라 공사 중인 단지에 대해 신규 브랜드 적용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단지가 단기간에 브랜드 변경 동의율 80%를 넘어서는 등 신규 브랜드 포레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은 이들 8개 단지에 대해 포레나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건물 외벽, 출입 게이트를 비롯한 단지 외부 사인물에 표시되는 브랜드 마크를 변경 적용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브랜드 변경에 대한 문의 및 요청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협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입주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포레나 브랜드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포레나 루원시티' 조감도

### 증권 다이제스트



#### 키움증권 인스타 계정 오픈 이벤트

키움증권이 오는 24일까지 인스타그램 공식계정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키움증권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서 팔로우와 좋아요를 누르고 미션해시태그(#키움증권 #인스타이벤트 #주식은키움)를 작성한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팔로우와 좋아요' 클릭자 200명(매일 1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 유진투자증권 11일 IT전망 투자설명회

유진투자증권이 오는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석관동지점에서 'IT 및 반도체 섹터 진단과 전망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내 반도체 분야 정상급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이 강사로 나선다. 이 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 등 IT 및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살펴보고 업종 내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내년 실적 전망에 대해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